

위대한 국민의 승리...분열·갈등 넘어 통합의 시대 열자

무너진 민주주의 세우는데 앞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다. 시민의 뜻이 반영된 정의로운 판결이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고 기다릴 만큼 기다린 시민들의 요구가 오늘의 결정을 이끌었다.

이번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다.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결과이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제 내란의 겨울이 끝나고 민주의 봄, 민생의 봄이 왔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국민통합으로 새 대한민국 만들자

전진숙 국회의원



현재의 결정을 눈물로 환영한다. 국회에서 남태령으로 한남동에서 광화문까지 국민 여러분의 빛의 혁명이 베풀어 온 꽃망울을 피웠다.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한 것이다.

한겨울의 칼바람과 내란세력의 총비루 앞에서 멈추지 않고 싸워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 언제나 그랬듯, 국민은 항상 옳았다. 여러분 덕분에 윤석열 파면을 이뤄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동조 세력에 경고한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 현재와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

파면선고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내란수괴, 내란공범 철저히 청산하고 민주국가·공정사회를 만들겠다.

국민 위 권력 없다는 것 재확인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윤석열 내란수괴 파면 선고는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헌법을 농락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파면’이라는 결과를 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전 국민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이번 선고가 계기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조한 이들 또한 책임을 묻고 단죄해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오늘의 승리는 80년 5월, 독재에 굴복하기보다 차라리 죽을 것을 선택했던 오월 영령들이 함께 이뤘다고 생각한다.

2025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겨울의 칼바람과 눈보라 속 축란을 지나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늘의 일을 잊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신속한 개헌으로 제2의 내란 막자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당연한 결과다. 국민들은 이미 현재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었고, 이번 판결은 그 믿음에 부응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다. 낡고 기형적인 권력 구조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그런 체제였기에 계엄령 시도가 가능했다.

5·18 정신이라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있었기에 우리는 모든 과정을 견뎌냈다. 시민들은 분노에 그치지 않았다. 무기력함 속에서도 작은 행동 하나, 선결제 하나로 민주주의를 되살리려 했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표본이다.

이번 판결은 과거 청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개헌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내란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이 분명히 확인했다. 시민들이 이미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란은 성공할 수 없다.

분열된 국론 다시 하나로 모아야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엄정한 결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윤석열은 내란이라는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과 역사 앞에 존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내란을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방조한 세력 역시 그에 합당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분열되었던 국론을 다시 하나로 모아 위기 극복에 힘쓰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긴급한 경제현안 해결 집중할 때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는 국가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도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제계는 정부와 협력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다. 지역에서도 트럼프발 상호관세 문제, 공공화 통합 이전, 위니아 사태 등 해결해야 할 긴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경제계는 정부와 협력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과 안정화를 이루도록 힘을 것이다.

정의는 승리...새 대한민국 만들자

홍현수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지켜졌고, 정의가 승리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위정자의 실책으로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경제는 무너졌다. 국론이 분열됐고, 갈등은 깊어졌다.

세계질서도 힘의 원리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의 후세대들이 자랑스런 마음으로 우리의 역사와 사회를 공부하며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만끽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내고야 말 것이다.

헌법정신 확인·국민 하나로 묶어

정병근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해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을 보면 탄핵 인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다.

이를 통해 헌법 정신을 높였고, 국민을 하나로 묶었으며,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행위에 대해 벌이 내려진다는 교육 효과가 있었다. 이제 대선 정국이다. 탄핵을 둘러싼 논쟁은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온·오프라인에 벌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초래된 정치·사회·경제 전반의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

사고 없이 집회현장을 관리한 경찰도 고생 많았다.

경찰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연 업무인 치안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민주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다. 계엄 당시 국민들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들었고, 생사의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에서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뚫음으로 막아섰다.

또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계엄 이후 윤석열이 파면되기까지 평온한 일상을 포기한 채 매일 매일 뉴스를 보고, 눈발이 휘날리는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밤잠을 설치며 간절히 민주주의를 열망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어두웠던 내란의 밤이 가고 환한 빛의 시대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다. 먹고사는 문제로 시름하는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국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맞춤형 대선공약 발굴에 힘써야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제는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여야가 함께 우리 경제를 되고 있는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내는 데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치러질 대선을 대비해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과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선공약과제를 발굴하고 차기 국정과제에 반영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발굴하고 광주경총 회원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광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전략과제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돼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광주 시민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숙원 과제들을 대선공약 및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섬기는 훌륭한 지도자 나오길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사필귀정(事必歸正)’임을 보여 줬다.

이번을 계기로 국민들은 다시 한번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요구하게 됐다. 국가 지도자의 파면은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민들은 이를 통해 나 오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과 상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더 이상 후손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세상,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을 섬기는 훌륭한 국가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의의 힘이 만든 역사적 판결

임원식 (사)광주예총 회장



이번 결정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려는 국민적 염원과 정의의 힘이 만든 역사적 판결로, 예술인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감사를 느낀다.

윤 전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와 권력 남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특히 군과 경찰을 통한 국회 무력화 시도는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으며, 이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싸워온 우리 광주 예술계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다.

광주예술인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오며, 언제나 불의에 맞서 진실을 이야기해 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되새기며, 예술을 통해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대의 양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빛의 혁명’을 외쳤던 국민의 염원과 노력이, 마침내 내란수괴의 파면을 이끌어 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파면에 앞장섰다.

22개 시군에서 당원 동지들이, 사발, 단식, 거리농성, 팻대 시위, 파면차량 운영, 서명 등 비상행동을 통해, ‘윤석열 파면’을 소리높이 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 특히 우리 전남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승리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이제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안전한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내란과 통상전쟁으로 망가진 경제와 외교를 정상화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 구하기엔 전력을 기울이겠다.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인 전남도당은 전남도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내란의 밤 가고 빛의 시대 시작

안형주 광주 서구의원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등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윤석열과 국민이원, 극우세력들은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는 꾀변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분열과 폭력의 무법천지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에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윤석열 구속’을 외치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 이러한 국민들이 헌신이 있었기에 ‘파면’이라는 현재의 주문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 어두웠던 내란의 밤이 가고 환한 빛의 시대가 시작됐다. 저와 민주당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의료 시스템 정상화 노력 기대

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을 발표로 시작된 의료계업, 국민 전체를 상대로 민주주의를 부정한 계엄 선포를 비취했을 때 현재의 탄핵 인용은 매우 환영할만하다.

다만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의학교육을 망가뜨린 자들이 정권의 실패를 심판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직위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통탄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현재 백척간두에 서 있다. 불합리한 정책에 저항한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여전히 그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의료 시스템 복구가 시작돼야 한다. 광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의학 교육과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정부의 노력을 기대한다.

끝 아닌 시작...정치에 지속 관심을

김한세 호남대학교 학생



헌법재판소는 결국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지켜졌다는 뜻이다.

사실 그동안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달랐다.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 싶었던 일들이 연달아 실현됐고, 그 와중에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며 많은 걸 느꼈다.

시민들이 SNS, 광장, 일상 곳곳에서 행동했고, 그것이 여론이 되고 힘이 됐다. 나 역시 이번엔 그냥 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시국선언문도 읽어봤다. 작은 행동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이번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학생들도 더는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나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본다.